

‘바다호랑이’ 이지훈 “세월호 아픔 강요 아닌 치유하는 영화”

잠수사 故김관홍 모티프…“선의로 일한 잠수사에 책임 떠넘긴 과거, 바로잡는 시발점 되길”

“돈을 벌려고 한 건장이었으면 들어 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밖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 수심의 바다에 맡게는 네 번, 다섯 번을 들어갔어요.” “저는 잠수사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제가 가진 기술로 그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좀 더 빨리, 한 구라도 더 찾아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잠수사 고(故) 김관홍씨가 2015년 9월 국정감사와 12월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그는 이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이듬해 6월 급성 심

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수색 작업으로 얻은 잠수병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눈을 감기 직전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 해경이 구조 작업 당시 발생한 잠수사 사망 사고의 법적 책임을 동료 잠수사들에게로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는 더 극심해졌다. 김씨는 바다를 떠나 대리운전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 나갔고 가족과도 떨어져 지냈다. 고양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에도 그는 혼자였다. 그러나 김씨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만

든 정운철 감독의 영화 ‘바다호랑이’는 해피 엔딩으로 끝을 맺는다. 잠수사 경수(이지훈 분)는 미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학생의 유가족에게서 용서받고 비로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만약 (현실처럼) 세드 엔딩이었다면 저 자신도 답답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경수는 가족을 만나고 다시 자식들을 안을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작품은 과거의 일로 아픔을 겪던 한 인간이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바다호랑이” 주연 배우 이지훈은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아픔을 강요하는 영화가 아니라 관객도 함께 치유하는




‘바다호랑이’ 주연 배우 이지훈 <코트포드덕선 제공>

주며 시작한다. 평정심을 유지하던 경수는 물속에 들어가 처음 시신을 수습한 것을 계기로 점점 정신력이 무너진

다. 제정신이 아닌 채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잠수를 시도하고, 해경에 의해 쫓기다시피 현장을 떠난 뒤에는 폭력적인 성향이 튀어나와 가족과 거리를 둔다. 이지훈은 “그분(김관홍 잠수사)의 아픔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해(감정을) 따라 한다면 연기가 거짓처럼 보일 것 같았다”며 “이지훈이라는 사람이 만약 그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며 입했다”고 돌아봤다. 경수 역이 매우 감정 소모가 큰 인물이란 것 외에 또 다른 어려움도 있었다. 영화 속 배경을 오직 ‘상상’에만 의존해 연기해야 했다는 점이다. 이지훈은 “오직 저에게만 의지해 연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며 “그 의 모

든 것을 배제하고 제게만 집중한 것이 오히려 연기에 확신을 줬다.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총제작비가 2억원에 불과한 작품이지만, 지난달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고 화제작으로 뽑혔고 개봉 전 시사회에서 호평이 쏟아지는 등 관객의 반응은 뜨겁다. 이지훈은 관객의 공통적인 반응이 “소리 내서 울지 못한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와 잠수사들에 대해) 할 수 있던 것도, 해준 것도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민간인 잠수사가 얼마나 노력했고 처우가 어땠고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영화가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던 과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5월 28일 천문역원 (062)673-2427
子	쥐띠: 더욱 지혜를 모아 미래를 설계하라. 노력하는 만큼 이득이 따른다. 36년생 악도 지나치면 해롭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에너지를 충전시켜야 한다. 48년생 매사에 꼼꼼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면 결국 자신에게 손해다. 60년생 가까이에 나를 알아주고 제대로 봐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72년생 부부애로 화해하게 된다. 진심으로 서로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풀린다. 84년생 서로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96년생 가끔은 일이 내 뜻대로 잘안풀리는 때가 있겠지만이다. 08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적극적인 태도가 길한 하루다.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초록색	
	소띠: 눈 부신 태양에 공기마저 상쾌하다. 좋은 운을 누릴 수 있겠다. 37년생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49년생 이미 결정된 일이다. 번복할 상황이 아니므로 그냥 진행하라. 61년생 선불리 나설 일이 아니다. 제삼자의 의견을 들어보라. 73년생 아직도 기회는 열려있다. 진술한 대화가 막힌 물고기를 풀어준다. 85년생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가진다면 주위가 더 편이 된다. 97년생 비용 절감을 생각하라. 외의의 탈출구를 찾을 수 있겠다. 09년생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품행을 올바르게 해라. 행운의 수: 3.5 행운의 색: 노란색	
寅	호랑이띠: 새롭게 배운다는 자세를 보이면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도움을 받는다. 38년생 상대방의 흠 잡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라. 50년생 내 코가 석 자니 일단은 자기 일부러 처리하라. 62년생 마음은 여럿인데 몸은 하나다. 마음이 급하니 할 일의 순서가 뒤바뀌고 엉키기 쉽다. 74년생 말을 옮기지 마라. 자칫하다가는 시끄러운 문제로 확대된다. 86년생 공통의 대화를 생각하라. 외의로 잘 풀려나갈 것이다. 98년생 성실함은 큰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 조금씩 진보하니 더 탄탄해진다. 10년생 상대를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어라. 그러면 좋은 친구를 얻는다. 행운의 수: 7.9 행운의 색: 보라색	
	토끼띠: 낮은 습관을 버리고 벗어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39년생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51년생 마음고생 할 일이 생긴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져라. 63년생 매사에 신중하게 살핀다면 큰 지장 없이 지나갈 수 있다. 75년생 많은 이들과 어울려라. 그 안에 행복이 있다. 87년생 초조해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해결하라. 99년생 상대와 고집을 겨루지 않도록 하라. 이해관계가 얽히면 충돌하기 쉽다. 11년생 인내심이 없이 경거망동하면 분명 화를 부른다. 행운의 수: 0.3 행운의 색: 파란색	
辰	용띠: 다 풀리게 되어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된다. 40년생 남이 안 본다고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지켜보는 사람이 곳곳에 있다. 52년생 자주 집을 비우면 좋지 않다. 출행하지 말고 집안 관리에 충실해야겠다. 64년생 순조로운 운을 타고 성취감을 맛본다. 76년생 타협할 줄 모르고 무조건 틀어붙이면 결국 문제만 일으키게 된다. 88년생 아랑답게 사람을 이어가려면 서로에게 진실하고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00년생 기쁜 일은 혼자 독점하지 말고 나누어 가져라. 주위에 감사해야 한다. 행운의 수: 0.9 행운의 색: 회색	
	뱀띠: 받을 것만 생각해서서는 곤란하다. 베풀지 않으면 무엇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41년생 우물 안에서 목발할 할 일이 생기니 더 답답하겠다. 53년생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생긴다. 자존심이 손상되기 쉽다. 65년생 지난날에 실패를 쏟았던 일이 오늘에서야 희소식을 들려준다. 77년생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술 한 잔씩 나누면서 고민을 풀어버려라. 89년생 무엇이든 자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야 할 것이다. 01년생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 계획을 세웠으면 한 가지에 전념하라. 행운의 수: 4.7 행운의 색: 황금색	
午	말띠: 경험을 많이 쌓을수록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다 42년생 서로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이런저런 문제로 다른 사람과 대립할 수 있다. 54년생 초조하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다. 66년생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면 언젠가 문제가 된다. 대화로 해결하라. 78년생 운이 유리하게 돌아가니 잘 활용하라. 90년생 머리를 써야 한다. 기회가 주어지고 그만큼 기쁨도 따른다. 02년생 오랜만에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화분을 돌게 된다. 행운의 수: 2.5 행운의 색: 갈색	
	양띠: 인간관계에서 솔직하게 대하라. 웃는 얼굴을 하면 저절로 복이 온다. 43년생 돈을 벌러러 오면 단칼에 거절하도록 하라. 55년생 내일을 위한 준비 기간이니 쉬면서 체력을 축적하여라. 67년생 평소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이 기다려지는 때이다. 79년생 그동안 하고 싶어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을 해보는 계기가 생긴다. 91년생 생-검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해보라. 상대가 점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다. 03년생 선남선녀가 만나니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된다. 행운의 수: 3.6 행운의 색: 보라색	
申	원숭이띠: 가만히 있지 말고 가까이로 귀이트 먼 귀이트 떠날 계획을 준비하라. 44년생 그동안의 경험을 잘 살펴야겠다. 당황하면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다. 56년생 지난날 섭섭했던 일은 깨끗이 잊고 새로운 마음을 가져라. 68년생 마음이 맑으면 꿈자리도 편안하다. 80년생 내일을 기약하라. 오늘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행운을 끌어온다. 92년생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순수한 사랑이 오래 지속한다. 04년생 호사다마라고 했다. 잘 풀린다고 긴장을 풀지 마라. 행운의 수: 0.1 행운의 색: 흰색	
	닭띠: 오늘 오후 시간에 하는 일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5년생 나이를 먹을수록 그리운 간 형제간의 정이다. 57년생 공과 사를 구별하라. 남 때문에 좌우되는 일이 많을 수 있다. 69년생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니 관리를 잘하라. 81년생 큰일의 시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된다. 93년생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서로이주작은 엇갈림으로 애정 관계로 발전되지 못하기 쉽다. 05년생 가족이나 친구의 말로 큰 힘을 얻게 된다. 행운의 수: 3.6 행운의 색: 보라색	
戌	개띠: 길흥의 변화 기복이 심하니 균형있는 생활을 해라. 46년생 소망을 품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58년생 마음이 떠 있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70년생 자존감을 가져라.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이 필요할 날이다. 82년생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 쓸데없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 94년생 서로가 진지하게 미래에 관해 얘기하는 시간을 만들려라. 06년생 모든 것이 즐겁겠다. 마음을 즐겁게 가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빨간색	
	돼지띠: 언어의 선택에 특히 신경 쓰도록 하라. 35년생 알레르기 반응으로 합병증 증상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47년생 모든 노고와 번민이 는 녹두 사라지고 점차 좋은 운이 다가온다. 59년생 자신감과 용기 없이 성공은 결코 없다. 마음을 굳게 먹으면 운은 당신의 편이다. 71년생 늦가리면 자신만 손해다. 마음을 열면 좋은 인맥을 얻을 수 있다. 83년생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야 한다. 감정에 휩쓸리면 후회하게 된다. 95년생 자신과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상대에게 첫눈에 반하게 된다. 07년생 원지 태평스러 놀고 싶어진다. 행운의 수: 0.4 행운의 색: 주황색	



전국교통방송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 진행자: 윤지현 | 작가: 정안숙

즐거움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

수신자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장원나 |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 진행자: 최유규 |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

지역채널 커머스 < 청도 신비 복숭아 >

전국 농수산업체들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작 방송되는 지역채널 커머스. 이번 편에서는 경상남도 청도의 특산물인 매끈하고 속이 쫄면 6~7월이 제철인 신비복숭아를 소개한다.

방송 : 6월 23일(월)~27일(금) 06:00~07:00, 16:00~17:00

네트워크발굴 서울광광 < 뒤통이 한반도 달콤한 디저트 편 >

4곳의 지역캐이블TV 방송국이 공동제작하는 현지인이 찾는 지역 탐방 프로그램. 이번 주는 충청도에 있는 뒤통이로 유명한 소문난 맛집과 화성타워 딸기빙수로 이름난 디저트 맛집을 찾아간다.

방송 : 6월 26일(목)~28일(토) 14:00~14:30

KCTV특집 < 호국의 달 특집 '강뉴, 승리의 이름으로' >

한국전쟁 당시 무패전선의 전설을 남겼던 에티오피아의 강뉴(Kangnew)부대의 기록과 역사를 되돌아 보고 당시의 아픔과 헌신했던 이들을 기억한다.

방송 : 6월 25일(수)~27일(금) 13:00~13:50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에서 일어나 다양한 주요 소식을, 동네 이야기들을 전하는 데일리 뉴스.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풋풋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작품을 만나본다.

CMYK